

다산포럼



한재훈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진리’ 혹은 ‘절대적 가치’ 등 인간이 추구해야 할 어떤 것을 일찍이 동양에서는 ‘도(道)라고 이름하였습니. 도는 글자 그대로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을 경유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삶이라는 긴 여정을 올바르게 걸어가기 위해 따라야 할 그 길을 ‘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주 만물 속에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 그중에서도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혹은 뒷사람이나 아랫사람으로서, 친구로서, 나아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야 할 길 등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는 동안 ‘관계를 속의 나’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에게에 그 길들을 알아내고 걸어가게 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그 밖의 존재들과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 그리고 노자 등 수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동양

삶을 기르는 길

사상의 핵심에 언제나 도가 놓여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장자(莊子) 역시 그의 방대한 저서 ‘장자’에서 ‘양생(養生)의 도를 언급하였습니다. ‘양생의 도란 ‘삶을 기르는 길’ 또는 ‘살아 있는 것을 기르는 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생의 도’는 나의 삶 혹은 살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살피고 길러 내는 방법에 대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주제를 장자는 특유의 흥미로운 예화 속에 날카로운 지혜를 담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포정해우(庖丁解牛)’라고 불리는 이예화는 뛰어난 솜씨로 소를 해부하는 포정(소 잡는 사람)과 문혜군(文惠君)이라는 임금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포정이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신기에 가까운 솜씨로 소를 해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 훌륭하다! 기예가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는구나!”라고 탄복해 마지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포정은 가만히 칼을 내려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소중하 여기는 것은 도(道)입니다. 기예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처음에 신이 소를 잡을 때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뒤로는 온전한 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은 정신으로 소와 만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의

인지는 멈추고 정신이 하려는 대로 따릅니다. 하늘의 이치에 의지하여 큰 틈새에 칼을 집어넣고 빈 곳을 따라 소의 몸 구조대로 할 뿐입니다. 아직 한 번도 살이나 인대를 다치게 한 일이 없는데, 하루며 큰 뼈이겠습니까? ... 지금 신의 칼은 19년이나 되었고, 잡은 소만도 수천 마리에 이릅니다. 하오나 칼날은 마치 방금 솜뿔에 간 것처럼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저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이 칼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을 가지고 틈이 있는 데에 넣으니 넓고 넓어 칼날을 놀리는 데 여유롭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19년이나 된 칼이 방금 솜뿔에 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

포정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문혜군은 “훌륭하구나.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養生)의 도를 깨달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소도 몸의 구조가 서로 같은 것은 없습니다. 포정은 그동안 그런 각각각색의 소들을 수천 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칼은 결코 소의 뼈는 물론이고 소의 살에조차도 부딪힌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포정이 소를 잡는 데는 세 단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포정은 선생이나 선배들이 제공해 주는 매뉴얼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은 소를 잡아야 하는 포정이나, 포정이 잡아야 할 소를 알지도 못하는 제3의 누

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포정은 매뉴얼을 버리고 자신이 축적한 노하우를 사용해서 소를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계는 있었습니다. 정작 분해되어야 할 것은 소인데, 엉뚱하게도 포정 자신의 감각에 의지한다는 한계 말입니다. 그래서 포정은 마침내 세 번째 단계인 ‘각각의 인지는 멈추고 정신이 하려는 대로 따르는’ 경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포정은 이것을 ‘기예가 아니라 ‘도’라고 말합니다.

포정이 이렇게 자신의 감각이나 생각을 넘어서고자 한 까닭은 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포정이 잡은 것은 죽은 소였습니다. 죽은 소마저도 각각의 생김새대로 다루어야 한다면, 하물며 살아 있는 존재를 다루는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문혜군이 터득했다고 말한 양생(養生)의 도는 바로 그가 보살펴야 할 백성들을 염두에 둔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역시 날마다 죽은 소가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어떤 삶을 살든 항상 ‘양생의 도’를 생각해 봄 직합니다. 제도나 규칙적인 기예를 넘어 각자가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이 세상은 각각 다른 것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춘특독



박은비 동신대 식품영양학과 3학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게 눈치 보이는 요즘, 오랜만에 책을 들었다. 1년 전 단순히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이유로 잡인 일빈의 작가의 저서 ‘언어가 잠든 집’이 보인다.

추리 소설 작가로 유명하다는 평 때문에 기대를 하고 샀던 책이었는데, 기대와는 달랐다. 이 책은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뇌사자가 나온다. 수형장에서 물에 빠져 의식불명 상태가 된 여자 ‘미즈호’가 바로 잠든 언어다. ‘뇌사’라는 비극을 맞이한 미즈호는 뇌가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자가 호흡마저 불가능하다. 의식의 여부를

사랑과 광기

차지하더라도 기계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뇌사’는 식물인간과 다르다. 식물인간은 대뇌에 입은 심각한 피해로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긴 하지만, 뇌간은 손상되지 않았다. 뇌간이 살아있으면 자고 깨는 행위나 위장 운동, 자발적 호흡 등이 가능하다.

우리가 가끔 오래 시간 동안 무의식 상태로 누워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기억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들은 모두 뇌사자가 아닌 식물인간이다.

반면 뇌사자는 뇌간을 포함한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돼 있다. 인공호흡기 등 기계 도움으로 호흡이나 생명 유지는 가능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코 회복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즈호의 담당 의사는 ‘뇌사’ 라는 소견과 함께 부모에게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착한 딸아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부부가 동시에 아이의 손이 움푹하는 것을 느낀다. 이후 엄마 가오루쿠는

장기 기증을 거부하고 뇌사자가 돼 버린 딸을 자신의 곁에 두고 지켜보는 삶을 선택한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뇌사로 의심되는 환자가 장기 기증의 의사를 밝힐 때에만 뇌사 판정을 진행한다. 단, 장기 기증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심장이 멈출 때까지 뇌사 판정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즈호는 ‘뇌사’인데도 ‘뇌사’ 판정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장기 이식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지만, 기증자가 없어 죽음을 맞이한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가 나온다.

조용히 잠든 채 누워 있는 딸의 생명이 끝났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 미즈호의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살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아이의 죽음, ‘언어가 잠든 집’은 이 두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 그 사랑을 넘어선 광기를 보여주며 ‘뇌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던진다.

몇 년 후 결국 미즈호는 죽고 그 아이의 장기는 또 다른 아름다운 생명들을

살리게 된다. 그 결말을 마주한 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같은 상황이라면? 부모에게 자녀의 몸까지 처분할 권리가 있을까. 과연 인간은 언제부터 죽는가. 기계로 움직이는 인간을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부모의 만족을 위해,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생명을 무시하는 게 옳은 결과. 장기 이식이라는 절차가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심장은 뛰지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쉽지 않은 결단의 순간을 미즈호 가족과 함께 경험하면서 의식과 생명, 삶과 죽음의 경계와 존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미즈호 엄마의 말이 여전히 강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 “세상에는 미처 서러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야. 만약 이쿠모(둘째 아들)가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틀림없이 나는 또 미칠 거야.” 사랑과 광기는 단지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인 것 같다.

기고



홍석봉 영광군 부군수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인 영광 굴비는 460여 개 업체에서 연간 1만 6360t을 생산해 32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약 75%, 명실상부한 지역 경제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참조기 어획량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만 7000t에서 2017년에는 1만 9000t으로 30%가 줄었고, 영광 굴비 생산량 역시 1만 9000t에서 2018년에는 1만 6000t으로 약 16% 동반 감소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지역 사회는 자연산 참조기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 참조기의 스마트 양식에 나섰다. 지속 가능한 굴비 산업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대량 생산함으로써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굴비 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수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해 ‘스마트 양식

영광 굴비 산업의 미래 ‘참조기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수산 혁신 2030’을 수립중이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노동 집약적 재래식 양식에서 벗어나 기술·자본 집약적 지식산업으로 재편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미래 양식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총 사업비 400억 원 규모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과 배후 부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배후 부지에는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 시설, 가공·유통,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업체가 상호 협력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스마트 양식은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수온·염분·수소이온지수(pH) 등 실시간 수질 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시스템, 수질 관리·자동화 시스템(RAS), 빅 데이터·인공 지능(AI)에 기반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구현하는 양식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시장 수요 예측 및 생산량 자율 조절 등 최적의 양식 경영 시스템도 포함된다. 4차 산업, 경영, 수산 등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의 융·복합의 결정체인 셈이다.

영광군은 어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하면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스마트 양식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영광의 대표 어종인 참조기를 그 첫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필요한 대규모 부지 확보 및 각종 인허가,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참조기 양식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피블락, 참돔 등은 고수온에 약해 여름철 폐사가 발생되고 있는 반면, 참조기는 섭씨 34도의 고수온과 질병에 강한 어종으로 아열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체 품목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둘째, 참조기는 새우, 전어 등과 함께 6-7개월 단기간 양식으로 미당 크기 21cm, 무게 100g까지 성장시켜 출하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양식 품종이다. 셋째, 참조기는 수급 조절이 가능한 품목이다. 낚치, 우럭 등과 달리 과잉 생산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의 문제를 냉동 보관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3년간의 자체 참조기 시범 양식 결과 확인된 바 있다.

영광군은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도 모두 충족시켰다. 사업 부지를 이미 결정하고, 사업에 참여할 공공 및 민간 주체들도 확정했기 때문이다. 사업 부지는 테스트베드 양식장과 배후 부지 조성을 위해 7만㎡ 이상 확보해야 하며, 도시 근교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또 사업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뒀 주변에 오염원이 없고, 관광지와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춘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양식의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의 구성도 마무리 단계다. 수산종자, 사료, 질병 관리, 굴비 유통·가공 등의 관련 기업, 정보통신-에너지 관련 기업, 수협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 산학연 상호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한 국내 수산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도 거둬 생각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형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영광군이 개발해 전국, 전세계에 보급·확산하겠다는 각오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영광은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수산물의 단순 생산만이 아니라 미래 양식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지역 내에 가공·유통 시스템을 만들어 수산업으로 잘 사는 영광을 만들고 싶다.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영광의 굴비 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영광 미래의 시작점이 될 참조기 스마트 양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社說

수천 건의 댓글 5·18 상습 왜곡 강력 처벌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댓글 작성자의 과거 이력 전체를 공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비방 글을 달아 온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네이버의 공개에 따라 광주일보가 인터넷에 게재된 5·18 주요 기사의 댓글 이력을 추적한 결과 수백~수천 건씩 왜곡·편향 댓글을 써 온 5·18 악플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015년 10월 5·18 당시 복면을 쓰고 군용 지프에 올라 도심을 순찰 중인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5·18 왜곡 혐의로 고소했다. 이 때 ‘h777****’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이러한 내용이 실린 기사에 “북교 특수군이 저지른 광주학살 만행을 대한민국 국군인 공수부대에 뒤집어씌운 수치스러운 반역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하면 ‘a6m2****’(호성성님)이라는 누리꾼은 지난해 12월12일 전두환 씨가 ‘20만 원 삭스핀 오찬을 즐겼다’는 기사에 “홍어새끼들, 전 장관님 진지도 못 드시게 발광이네 카야 뿡!”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인혁당’ 피해자 과다

배상금 반환’ 판결 기사에는 “5·18 배상금도 전액 몰수하고 삼청교육대에 도로 잡아넣어라”고 올렸다. 그의 댓글을 추적해 보니 지난 2013년부터 무려 4787개를 올렸는데 대부분이 전라도를 ‘홍어’라고 비하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이었다.

또 ‘hwj****’이라는 누리꾼은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 기사에 “518 폭동 세월호 촛불 폭동 전부, 뒤에 북한이 있다”고 올리는 등 2012년부터 모두 2156개의 댓글을 달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들의 비방 댓글을 다른 누리꾼들이 무차별적으로 퍼 나르고 있는 점이다.

일부 누리꾼들의 이런 행태는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네이버의 댓글 공개로 그 실태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5·18 40주년을 맞은 우리의 책무이다.

코로나 피해 제조업 적기 지원이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기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 극심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 지역 1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피해 업체는 무려 73.8%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열 곳 중 일곱 곳이상이 코로나19로 경영상 피해를 봤다는 얘기다.

이 중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35.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출 감소’(15.5%) ‘자금 경색’(13.9%) ‘중국산 부품·자재 조달 어려움’(12.8%)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 감소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때

출이 평균 22.3% 감소할 것으로 광주 제조업계는 예상했다. 또 2분기 매출 전망에 대해서도 ‘1분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코로나로 올해 광주 제조업계의 매출 감소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화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금융·세제 지원’(35.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들 제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 내수 회복 지원 등 각종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때를 놓칠 경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적기 지원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개인이 그렇지만 한 사회나 국가의 수준도 위기에서 드러난다.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개인이나 국가가 번영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보내기는 기본이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대구·경북 등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역에 보내는 응원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시발점이 됐다. 이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가맹점 돕기, 농어민들을 위한 농수산물 팔아 주기, 택시 회사들의 사납금 인하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

시민과 국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전국의 보건·의료진들은 지역 감염이 폭발한 대구·경북으로 달려갔다. 바람도 통하지 않는 불편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땅에 떨어진 모습으로 환자를 돌보는 그들의 모습은 ‘헌신’의 귀감이 됐다.

는 알바(아르바이트) 노조가 음식점 사장님들을 돕기 위한 유쾌한 ‘과식 투쟁’에 나서는가 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착한 선결제’ 움직임도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도 위기 속에서 빛났다. 광주시는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대구시가 어려움을 겪자 ‘병상 나눔’에 나섰다. 전남은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사랑의 도시락’을 대구·경북 의료진들과 환자들에게 보냈다.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동서 화합의 지평을 넓힌 광주·전남의 응원은 상생의 정신을 전국으로 번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도 마스크

의심과 불신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길 기원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tuim@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 |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